

KIA 선수·코칭스태프 30명에 물었다 “올 시즌 키 플레이어는?”

“투수 양현종.. 타자 김주찬”



양현종



양현종과 김주찬이 호랑이가 뽑은 ‘호랑이’로 꼽혔다. KIA 선수와 코칭스태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투·타의 선수는?”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양현종과 김주찬이 1위에 올랐다.

선발로 재도약한 양현종은 14표를 획득하면서 4표를 얻은 셋별 임준섭을 누르고 최고의 투수 기대주로 자리했다. 마무리 앤서니와 ‘커브의 달인’ 김진우, 좌완 불펜의 핵심 진해수는 각각 3표를 얻었다. 윤석민·박지훈·소사의 이름도 언급됐다.

타자에서는 FA 대어 김주찬이 13명의 지지를 받으며 타선의 기대주가 됐다. 시범경기 타율 1위에 빛나는 신종길도 5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내 이름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던 최희섭은 3표를 받으며 3위가 됐다.

안치홍·김원섭·이범호는 각각 2표, 이용규·나지완·홍재호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현종과 김주찬의 압도적인 득표에는 페이스가 좋다는 점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함께 담겨있다.

양현종을 꼽은 이들은 ‘제구와 공힘이 좋아졌다. 그냥 잘 던질 것 같다. 구위가 살아났다. 팀의 핵심 선수고 페이스가 좋다. 마운드에서 중요한 자리다. 볼이 좋다. 많은 준비를 했다. 자신의 구위를 되찾았다. 잘 해줘야 하나니까’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주찬을 선정한 이유에는 ‘잘해줘야 한다. 페이스가 좋고 야구를 쉽게 한다. 롯데에서도 잘했고, 기대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

투수	표수
양현종	14
임준섭	4
앤서니	3
김진우	3
진해수	3
윤석민	1
박지훈	1
소사	1



타자	표수
김주찬	13
신종길	5
최희섭	3
안치홍	2
김원섭	2
이범호	2
이용규	1
나지완	1
홍재호	1



양현종, 제구·공힘 좋아져 김주찬, 잘 해줄거라 믿어 2위 투 임준섭·타 신종길

치가 높다. 빠르고 잘하고 있다. 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잘해 줄 것 같다. 살벌하다. 앞에서 뛰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뒤에서 쳐주기 때문에, 잘 친다. 다리로 먹고 사는 선수다. 가세로 팀에 짜임새가 생겼다’ 등이 있었다.

임준섭은 ‘잘 던진다. 신인으로 패기가 넘친다’는 평가 속에 4명의 지지를 받았다.

김진우는 ‘밸런스가 좋고 구위가 좋아졌다. 별 생각없이 씩씩하게 잘 던진다’, 진해수는 ‘제구력, 볼 배합이 좋아졌다. 다른 팀의 주요 좌타자들을 막아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앤서니는 ‘마무리로 리그를 점령할 것 같다. 잘 막아줘야 하나. 마운드의 키포인트다. 안되면 안 되는 선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종길은 두 외국인 선수 앤서니와 소사로부터 기대되는 타자로 꼽히는 등 ‘잘한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희섭의 선정 이유에는 ‘흔들 개수가 증가할 것 같다. 김주찬의 합류로 인한 체력안배가 가능해졌다.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가 있었다.

이범호는 ‘2년 동안 부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 해줄 것 같다. 부상만 아니라면 충분히 3할을 기록할 수 있다’, 안치홍은 ‘수비는 물론 타격에서 여유가 생겼다. 수비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기 자신을 기대주로 꼽은 선수도 있었다. 김원섭과 나지완은 “정말 열심히 했다”며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

팔이 안으로 굽은 대담도 있었다. 룸메이트 사이인 박지훈과 김원섭은 서로의 이름을 언급했고, 신종길도 한방을 쓰는 홍재호를 기대 선수로 꼽았다. 신종길의 지지를 받은 홍재호는 초등하고 후배인 임준섭을 얘기했다. 임준섭은 체인지업을 전수해준 룸메이트 서재응의 지지도 받았다.

한편 투수 기대주 1위의 양현종은 진해수와 이범호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타자 기대주 1위 김주찬은 FA를 앞두고 있는 윤석민과 이용규를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호랑이로 선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KIA 30일 개막 이벤트 다채

선수사인회·사인볼 투척 미스코리아 김유미 시구

KIA가 오는 30일 2013시즌 개막이벤트를 펼친다.

개막 직전 이벤트는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되며 장외에서 잠기자랑 무대인 ‘슈퍼스타 KIA 2013’이 진행된다. 오후 12시30분부터 30분간 선수사인회도 열린다.

장내에서는 선수들의 올 시즌 각오가 담긴 개막 오프닝 영상물이 상영되고, 개막을 축하하는 그룹 ‘더 크랙’의 구단 응원가 공연이 펼쳐진다.

태권도 시범단의 오프닝 공연과 연예인 축하 영상물 상영은 개막 분위

기를 달구게 된다. 공식행사는 오후 1시35분부터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V11에 도전하는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되며 강운태 광주시장은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기념품을 전달한다.

KIA 이삼용 사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퇴장을 하는 선수단은 팬들에게 사인볼을 투척할 계획이다. 광주시아버지합창단이 애국가 제창을 하며, 강운태 시장이 시구를 한다. 31일 경기의 시구는 지난해 미스코리아 김유미가 할 예정이다.

한편 KIA는 30일 오후 2시 넥센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013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홈페이지 새단장 30일 개막전에 맞춰 오픈

KIA타이거즈가 2013시즌 개막과 함께 30일 새롭게 디자인된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새 단장을 끝낸 홈페이지(www.tigers.co.kr)는 ‘Simple & Smart’를 컨셉으로 구단 대표색상인 레드와 다크블루를 사용했으며,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했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접속이 가능했던 단체관람 신청, 프리포스트 신청 등을 홈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가하는 모바일 사용자들을 위해 모바일 웹사이트(m.tigers.co.kr)도 구축하는 등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류현진 LA 2선발 확정...4월 3일 SF전 데뷔

내일 마지막 시범경기 등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26)이 2선발로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다저스 구단은 오른손 검지를 다친 우완 채드 빌링슬리를 대신해 류현진이 팀의 두 번째 선발 투수로 정규리그에 출격한다고 27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을 정정규로 2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류현진은 4월 3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메이저리그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자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대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마운드에 오르는 류현진은 첫 등판부터 그에 출격한다고 27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다저스는 ‘좌완 원 투 펀치’로 시즌을 맞는다. 시즌 개막을 1주일 앞두고 선발 투수 정리에 들어간 매팅리 감독은 전날 테드 윌리, 애런 허랭, 크리스 카푸아노 등 3명을 불펜으로 돌린 데 이어

시즌 초반 운영할 선발 로테이션의 순서를 확정했다.

캐스, 류현진의 뒤를 이어 조시 벡트, 잭 그레인키 두 오른손 투수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른다.

다저스는 4월 14일까지 4명의 선발 투수만으로도 마운드를 꾸려갈 수 있다. 이후 빌링슬리가 가세하면 5인 로테이션 체제로 시즌을 운용한다. 매팅리 감독은 그레인키의 팔꿈치 상태가 호전되면 그를 2선발로 기용할 계획이어서 5인 선발 체제에서 류현진의 선발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다.

류현진은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마지막 시범경기에서 무자책점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시즌 출격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1899-0240

ITALIA BED SHOW CASE

홍스페이스 TV 거실장 무료증정 행사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엽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